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강 경 선 교수지도

석사학위청구논문

역량강화 모델에 기초한 음악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중학교 특수학급 학생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2013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음악치료학과

박 진 아

역량강화 모델에 기초한 음악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중학교 특수학급 학생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강 경 선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음악치료학과
박 진 아

인 준 서

박진아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곁에서 많은 힘이 되어준

사랑하는 남편 **정자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논문개요

본 연구는 역량강화 모델에 기초한 음악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중학교 특수학급 학생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경기도 소재 가 중학교와 나 중학교의 특수학급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3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실험집단 15명과 통제집단 15명으로 구성하였다. 연구자는 해당 중학교 도움반 교실에서 매 회기 45분씩 주 2회로 4주 동안 총 8회기에 걸쳐 역량강화 음악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진로성숙도의 평가를 위해서 '초등학생용 진로성숙도 검사'를 사용하여 1회기 중재 전에 사전검사를 실시하고, 8회기 중재 후에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해 분석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진로성숙도에 대한 독립표본 t-test 결과, 사후검사에서 두 집단이 $p<.01$ 수준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험집단 내 진로성숙도에 대한 대응표본 t-test 결과, 사전사후검사 점수의 차이가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는 역량강화 음악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진로성숙도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 둘째,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영역별 진로성숙도에 대한 독립표본 t-test 결과, 사후검사에서 두 집단이 자기이해 영역 $p<.01$ 수준, 일에 대한 태도 영역 $p<.05$ 수준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실험집단 내 영역별 진로성숙도에 대한 대응표본 t-test 결과, 계획성 영역과 독립심 영역은 $p<.01$ 수준, 자기이해 영역과 일에 대한 태도 영역은 $p<.001$ 수준에서 사전사후검사 점수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는 역량강화 음악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진로성숙도의 영역별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목 차

논문개요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 문제 ---------- 4

Ⅱ. 이론적 배경

1. 특수학급과 통합교육 ---------- 5
2. 장애학생의 진로·직업교육 ---------- 7
3. 진로성숙
   1) 진로성숙의 정의 ---------- 9
   2) 중학생의 진로성숙 ---------- 9
   3) 진로성숙 모형 ---------- 10
   4) 진로성숙의 측정 ---------- 11
4. 역량강화 모델
   1) 역량강화 모델의 정의 ---------- 12
   2) 역량강화 모델의 실천 ---------- 13
   3) 역량강화 모델의 평가 ---------- 14
   4) 장애인을 위한 역량강화 모델의 접근 ---------- 15
   5) 긍정심리치료와 역량강화 모델 ---------- 16

5. 역량강화 음악치료의 메커니즘
1) 음악과 감정능력 ---------- 17
2) 감정능력과 역량강화 ---------- 18
3) 음악치료와 역량강화 ---------- 19
6. 역량강화 음악치료의 핵심개념
1) 강점 ---------- 20
2) 적응유연성 ---------- 20
3) 대화 ---------- 21
4) 협동 ---------- 21
7. 역량강화 음악치료 기법
1) 노래 부르기 ---------- 22
2) 음악 감상 ---------- 23
3) 가사 만들기 ---------- 23
4) 가사 분석하기 ---------- 24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 25
2. 연구 기간 및 장소 ---------- 28
3. 측정도구 ---------- 28
4. 연구 절차
1) 연구 설계 ---------- 30
2) 자료 처리 ---------- 31
3) 음악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 ---------- 32

Ⅳ. 연구 결과

1. 실험-통제 집단 간 사전 동질성 검정 ---------- 35
2.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진로성숙도 사전사후 비교 ---------- 36
3. 실험집단 대상자별 진로성숙도 사전사후 비교 ---------- 38
4.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진로성숙도 영역별 사전사후 비교 --- 39

Ⅴ. 결론 및 제언

1. 결론 ---------- 42
2. 제언 ---------- 43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표 목차

<표 Ⅱ-1> 연도별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현황 ---------- 6
<표 Ⅱ-2> 중학교 특수학급 장애영역별 학생 수 ---------- 7
<표 Ⅱ-3> 진로성숙도 검사에 포함되는 하위영역별 정의 ------- 12
<표 Ⅱ-4> 역량강화 모델의 절차 ---------- 14
<표 Ⅱ-5> 역량강화에 기반 한 프로그램의 효과 ---------- 15
<표 Ⅲ-1> 집단의 구성 ---------- 25
<표 Ⅲ-2> 대상자 정보 ---------- 26
<표 Ⅲ-3> 성별, 장애유형별, 학년별 대상자 분류 ---------- 27
<표 Ⅲ-4> 장애등급별 대상자 분류 ---------- 28
<표 Ⅲ-5> 실험집단 장래희망별 대상자 분류 ---------- 28
<표 Ⅲ-6> 회기별 프로그램 실시 일정 ---------- 28
<표 Ⅲ-7> 초등학생용 진로성숙도 검사 문항 구성 및 신뢰도 ---- 29
<표 Ⅲ-8> 초등학생용 진로성숙도 영역별 신뢰도 ---------- 30
<표 Ⅲ-9> 연구 설계 모형 ---------- 31
<표 Ⅲ-10> 음악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구성 ---------- 34
<표 Ⅳ-1>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 검정 ---------- 35
<표 Ⅳ-2>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진로성숙도 독립표본 t-test 결과 36
<표 Ⅳ-3>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내 진로성숙도 대응표본 t-test 결과 37
<표 Ⅳ-4> 실험집단의 대상자별 진로성숙도 대응표본 t-test 결과 38
<표 Ⅳ-5>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영역별 진로성숙도 독립표본 t-test 결과 39
<표 Ⅳ-6>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내 영역별 진로성숙도 대응표본 t-test 결과 40

그림 목차

<그림 Ⅳ-1>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사후 검사 평균변화 ---- 37
<그림 Ⅳ-2>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사후 검사 영역별 평균변화 41

부록 목차

1. 진로성숙도 검사 ---------- 54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오늘날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직업의 생성과 소멸의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일의 내용도 점점 세분화, 전문화 되어가고 있다. 이로 인해 복잡한 직업세계의 요구와 변화에 대응하여 청소년이 자기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탐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진로·직업교육이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중학교 과정은 상급학교의 진학과 연계되어 있어서 이 시기의 진로결정 결과가 평생 동안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진로·직업교육이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진로결정 시기에 대한 박은아(2005)의 조사연구에 따르면 진로교육은 중학교 때 제공되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고 한다. 김경희(2007)가 실시한 조사에서도 80% 이상의 중학생이 '진로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중학생 스스로가 진로·직업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때문에 이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중학교 과정에서 해당 시기에 적절한 진로·직업교육을 충분히 제공해야 할 것이다.

장애학생의 경우 진로·직업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중학교 시기에 비장애학생은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면서 잠정적으로 진로결정을 경험하게 된다(이현림, 2006). 그러나 대다수의 장애학생은 어린 시절부터 가정이나 학교에서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기 때문에 막상 중학교 시기가 되어도 진로결정을 경험하기 어렵다(박기영, 2002). 이러한 경험의 부족은 결정기술의 부족으로 이어지며, 이는 졸업 후의 안정적인 취업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교육과학기술부(2012)의 특수교육통계에 따르면, 2012년 고등학교 과정 졸업 장애학생의 취업률은 특수학교 39.1%, 특수학급 60.8%, 일반학급 37.4%이며, 전공과는 51.2%이다.

이는 진학자를 제외한 졸업자 전체의 49.7%로, 나머지 50%가 넘는 장애학생이 졸업 후에 진학도, 취업도 하지 못했음을 나타낸다. 또한, 취업자의 27.1% 가량은 복지시설, 보호작업장 등에서 급여를 받는 직업재활 프로그램에 단기적으로 취업한 형태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취업률은 이보다 더 낮은 상황이다. 때문에 진로·직업교육을 통해 장애학생이 직업선택, 삶의 질과 관련된 선택 및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다. 이는 장애학생이 학교를 졸업한 후에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갖고 독립적 생활을 하며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한 준비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장애학생에 대한 연구에 비해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이상진, 2011), 그 접근방법 역시 제한적이다. 중학교 진로탐색 활동은 주로 학교에서 집단상담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존의 진로탐색 집단상담과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들은 상담자가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구안하고 그 효과를 살펴보는 형식이었다. 이는 활동지를 작성하고 발표하는 식의 구성으로 제한되어 있어 다양한 접근방법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김종운, 2012). 또한, 주장훈(2006)의 조사에서 효과적인 진로·직업교육 방법을 묻는 질문에 교사와 학생 모두 '학생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진로지도 방법'이 최우선으로 필요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 역시 학생들의 흥미를 이끌어내고 집단상담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새로운 접근방법이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집단상담의 접근방법 중 한 가지로 음악치료를 적용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음악치료에서의 집단상담은 집단 내의 음악활동이 집단원 사이의 관계를 형성시켜서 하나의 그룹으로 통합시키는 역할을 한다. 집단상담에서의 음악은 안전하고 지지적인 상호작용 내에서 친밀한 관계형성을 이루도록 돕는다(최병철, 1999). 선행연구에 의하면 음악치료 집단상담

은 우울 및 불안 감소, 자아존중감·자신감 향상, 사회성 증진, 교우관계 향상 등 다양한 영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나해숙, 2002; 신정선, 2005; 이경서, 2009; 임은정, 2005). 음악의 이러한 사회·정서적 기능은, 집단원간의 자기노출 및 자기표현을 도와 자기통찰에도 영향을 미친다. 집단원은 자기통찰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며, 자기를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직업을 선택·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음악치료 집단상담을 사회복지 실천모델 중 하나인 역량강화 모델에 기초하여 실시할 경우, 진로탐색을 더욱 적절히 도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음악은 정서적 지지를 돕고 자신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형성할 수 있게 해 역량강화 접근에 유용하기 때문이다(최신형, 2007). 오스트발트(Ostwald, 1973)에 의하면, 음악적 생성물을 통한 자기표현은 성취감, 신뢰감, 목적성을 제공함으로서 자기역량을 강화시킨다(최신형, 2007에서 재인용).

이상과 같이 음악치료에서의 집단상담을 통한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은, 학생들의 흥미를 이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접근방법으로서의 역할은 물론, 음악의 힘을 이용한 정서적·심리적 지지의 도구로서도 유용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모델에 기초한 음악치료적인 접근을 시도하여 진로·직업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장애학생의 진로·직업교육을 지원하고, 다양한 진로지도 접근방법을 구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는 역량강화 모델에 기초한 음악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중학교 특수학급 학생의 진로성숙도 및 진로성숙도 하위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역량강화 모델에 기초한 음악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중학교 특수학급 학생의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역량강화 모델에 기초한 음악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중학교 특수학급 학생의 진로성숙도 하위영역인 계획성, 자기이해, 일에 대한 태도, 독립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Ⅱ. 이론적 배경

1. 특수학급과 통합교육

전통적으로 장애학생은 일반적인 교육환경에서 분리된 교육을 받아왔으나, 1975년 미국의 전장애아교육법이 통과됨에 따라 많은 변화가 생겼다. 전장애아교육법은 '최소 제한 환경(Least Restrictive Environment)'을 명시하였는데, 이는 장애학생이 지역사회, 또래 등으로부터 최소로 분리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내용은 우리나라의 통합교육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이에 따라 특수학교 뿐 아니라 일반학교에서도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이 구성되기 시작하였다(김정혜, 최성욱, 2012).

특수학급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일반학교에 설치된 학급이다. 이는 아동의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전일제, 시간제, 특별지도, 순회교육 등으로 운영되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시간제 부분통합의 특수학급 형태가 가장 보편적이다. 시간제 특수학급은 학교에 머무는 대부분의 시간동안 일반학급에서 교육을 받고, 일정한 시간은 별도로 특수교육을 받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국립특수교육원, 2009). 특수학급에서의 통합은 시간적 통합, 공간적 통합, 교육과정적 통합, 사회적 통합을 포괄한다. 이는 장애학생이 특수학급과 일반학급이라는 두 개의 물리적 공간, 두 명의 교사, 두 개의 교육과정, 두 개의 사회가 존재하는 복합적인 환경에 직면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이은주, 홍진희, 2012). 특수학급 교사와 일반학급 교사가 실행하는 교육활동이 각각의 공간 내에서 단절되어 나타날 경우, 장애학생이 이원적 집단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 분명하므로(김정혜, 최성욱, 2012), 교사는 이를 유념하고 지도 시에 각별히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1971년 대구 칠성초등학교에 첫 특수학급이 설치된 이래로 일반학교의 특

수학급은 양적으로 많은 성장을 하였다. 표 Ⅱ-1과 같이, 일반학교에 배치되어 통합교육을 받는 학생은 2007년 65.2%에서 2012년 70.7%까지 증가하였다. 2012년 현재 전체 특수교육대상자의 18.4%는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에 배치되어 있고, 52.3%는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 배치되어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다시 말하면, 일반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70.7%의 특수교육대상자 중 74%에 가까운 학생이 특수학급에 배치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는 특수학급 배치가 통합교육의 가장 일반적인 모델이자 중요한 환경임을 의미한다(이은주, 홍진희, 2012).

<표 Ⅱ-1> 연도별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현황(교육과학기술부, 2012, p. 4)

연도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일반학교	전체
2007	22,963(34.8)	42,977(65.2)	65,940(100)
2008	23,400(32.7)	48,084(67.3)	71,484(100)
2009	23,801(31.7)	51,386(68.3)	75,187(100)
2010	23,944(30.0)	55,767(70.0)	79,711(100)
2011	24,741(29.9)	57,924(70.1)	82.665(100)
2012	24,932(29.3)	60,080(70.7)	85,012(100)

단위: 명(%)

현재 중학교 특수학급은 전국 1,593교에 2,144학급이 있으며, 11,659명의 특수교육대상자가 재학 중이다. 이는 유·초·중·고·전공과 전체 8,927개 특수학급의 24%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중학교 특수학급에 배치된 장애학생의 영역별 인원은 다음의 표 Ⅱ-2와 같다.

<표 Ⅱ-2> 중학교 특수학급 장애영역별 학생 수(교육과학기술부, 2012)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정신 지체	지체 장애	정서행동 장애	자폐성 장애	의사소통 장애	학습 장애	건강 장애	발달 지체
71	230	7,537	951	402	1,180	117	1,073	98	-

단위: 명

특수학급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효과적인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운영된다. 이는 교육적 통합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합의 근간을 이룬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장애학생 뿐 아니라 개별성과 다양성을 가진 모든 학생의 요구를 가장 적합하게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 통합교육이다(이시현, 2013). 특수학급이 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진단평가를 통한 선정 배치는 물론, 학생 특성에 기초한 특수교육서비스의 제공과 특수학급의 효율적 운영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우정한, 김지원, 2005).

2. 장애학생의 진로·직업교육

특수교육에서의 진로 및 직업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에서 사회 등으로의 원활한 이동을 위하여 관련 기관의 협력을 통하여 직업재활훈련·자립생활훈련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법제처, 2013).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대까지는 장애학생을 위한 진로·직업교육에 대한 연구와 자료개발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다가 1990년대 이후 그 의미와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하였다(정인숙 외, 2007).

일반적으로 진로·직업교육을 위한 진로발달 단계를 진로인식, 진로탐색, 진로준비, 직업배치의 4단계로 나누는데, 진로인식은 초등학교, 진로탐색은 중학교, 진로준비는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진다(박기영, 2002). 장애학생의 경

우에도 비장애학생과 동일한 진로발달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진로교육 프로그램 역시 기본적으로는 같으며, 장애학생의 요구나 필요를 적절히 반영해 운영하게 된다(Robert et al., 2010).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진로교육이 기대만큼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교사를 지원할 수 있는 자료와 정보도 충분하지 않거니와 교사 자체의 역량도 부족하기 때문이다(김은하, 2013). 교육과학기술부(2009)는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내실화 방안'을 통해 진로·직업교육의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장애학생의 안정적 취업률 저조, 일반학교 배치 장애학생의 진로·직업교육 미흡, 전공과 교육기회 부족 및 맞춤형 운영 미흡, 직업교육과정 운영의 유연성 미흡, 유관기관과 협력 부족 및 지원체제 미흡, 현장실습 및 지역사회 연계 부족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특수교사의 지식과 자원을 활용하는 것만으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고 효율적인 진로·직업교육을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다. 현실적으로 특수교사 1인이 학급의 모든 장애학생에 대해 개별화 전환 계획을 세우고 학생마다 적절한 기관 또는 업체를 발굴·연결해 실습 및 취업까지 관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때문에 특수교사 개인의 역량 증진을 격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전문가들의 팀 접근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진로·직업교육의 제공이 요구되는 바이다(김은하, 2013). 진로·직업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2009)는 '장애학생의 진로·직업교육 내실화를 통한 자립 및 사회 통합'을 목표로 다음의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정책과제는, 장애학생을 위한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지정·운영, 전공과 확충 및 운영 내실화, 특수학교 학교기업 설치 확대, 유연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진로·직업교육 활성화, 유관기관 협력 및 지원체제 구축의 5가지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러한 추진 과제를 통해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 및 직업교육 기반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3. 진로성숙

1) 진로성숙의 정의

크라이티스(Crites, 1981)는 진로성숙을 '개인이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인식, 선택, 계획하는 과정에 있을 때, 동일한 연령층 또는 발달단계에 있는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차지하는 위치'라고 정의하였다.

수퍼(Super, 1990)는 그가 주장한 진로발달이론을 통해 직업 선택, 직업발달이 아동기부터 성인 초기뿐 아니라, 성장기에서 쇠퇴기까지 생애 전반에 걸쳐서 발달·변화된다고 하였다. 그는 진로성숙의 개념 또한 이러한 진로발달이론을 바탕으로 설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진로성숙을 일련의 발달단계에서 각 개인이 도달한 위치로 정의하였다(이은실, 2013에서 재인용).

한국교육개발원 또한 진로성숙에 대해서 이와 유사하게 정의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진로성숙이란 '자아의 이해 및 일과 직업세계의 이해를 기초로 하여 자기 자신의 진로를 계획하고 선택하는 과정에 있을 때, 동일 연령이나 발달단계에 있는 집단의 발달과업 수행 정도에서 차지하는 개인의 상대적인 위치'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자아의 이해는 자기의 능력, 적성, 흥미, 가치관, 신체적 조건, 환경적 조건 등을 포함하며, 일과 직업세계의 이해는 직업정도, 일과 직업의 조건, 직업관, 직업윤리 등을 포함한다(이상애, 조현양, 2007).

2) 중학생의 진로성숙

진로성숙은 자신의 진로계획과 선택을 통합·조정해가는 발달단계의 연속이다. 각 발달단계에는 수행해야 되는 발달과업이 있고, 이 발달과업을 인지하고 수행해야 다음 단계로 발달해나갈 수 있다(유숙경, 2005). 중학생 시기

의 발달단계에서는, 맹목적인 욕구에 의존해 진로를 결정하는 환상기를 탈피하고, 진로와 관련된 자기이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황정은, 2009). 중학교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의 교량적 단계인 만큼 다양한 요소를 신중히 고려해야 하는 시기이다. 때문에, 구체적인 진로선택보다는 전반적인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자기 소질, 적성, 성격, 흥미 등에 대해 광범위하게 생각해 보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발달시켜야 할 것이다(강재태, 배종훈, 강대구, 2003).

3) 진로성숙 모형

수퍼(1970)는 청소년을 진로발달의 탐색기로 보고, 진로성숙의 구성요인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이진숙, 2005; 김민환, 2006에서 재인용). 이 다섯 가지 요인이 모두 충족되면 진로의식이 성숙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첫째, 진로선택에 대한 태도이다. 여기에는 직업문제에 대한 관심, 직업선택에 필요한 자원 이용의 효율성이 포함된다. 둘째, 선택하고자 하는 직업의 일관성이다. 여기에는 선호하는 직업분야의 일관성, 선호하는 직업수준의 일관성, 선호하는 직업군의 일관성이 포함된다. 셋째, 선택하고자 하는 직업에 관한 정보 수집 및 계획성이다. 여기에는 직업에 대한 정보수집의 면밀함, 진로계획의 치밀성, 진로계획에의 참여정도가 포함된다. 넷째, 자기특성의 구체적 이해이다. 여기에는 측정된 흥미의 유형화 정도, 흥미성숙, 일과의 연계, 직업가치 유형화의 정도, 일의 보상에 대한 논의의 정도, 선택과 계획에 대한 책임감의 수용, 직업적 독립이 포함된다. 다섯째, 진로문제에 있어서의 지혜이다. 여기에는 능력과 선호하는 직업 간의 일치, 측정된 흥미와 선호하는 직업 간의 일치가 포함된다.

이와는 달리, 크라이티스는 진로성숙의 구성요인을 진로선택 내용과 진로선택 과정의 두 가지로 분류한다(김민환, 2006에서 재인용). 첫째, 진로선택

내용은 진로선택 일관성과 진로선택 현실성으로 구성된다. 진로선택 일관성은 개인의 직업 선호도가 시간, 분야, 수준에 따라서 얼마나 일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일관성이 높을수록 진로성숙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진로선택 현실성은 개인의 특성과 선호하는 직업에서 요구되는 특성 간의 일치 정도를 말한다. 둘째, 진로선택 과정은 진로선택 태도와 진로선택 능력으로 구성된다. 진로선택 태도는 진로선택 과정에서 자신의 진로에 대한 뚜렷한 방향감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여해 가는 정도를 말한다. 진로선택 능력은 합리적 의사결정에 요구되는 정보, 이해력, 통찰력, 문제해결능력을 의미한다.

4) 진로성숙의 측정

진로성숙 측정도구로는 수퍼(1979)가 개발한 CDI(Career Development Inventory)와 크라이티스(1978)가 개발한 CMI(Career Maturity Inventory)가 대표적이다(정익중, 임진영, 황매향, 2011에서 재인용). 국내에서는 한국직업능률개발원에서 개발한 진로성숙도 검사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 한국직업능률개발원은 직업 및 진로지도 관련 연구·개발센터 '커리어넷'을 운영하고 있는데, 커리어넷의 홈페이지를 통해 진로성숙도 검사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 검사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진로성숙 태도, 진로성숙 능력, 진로성숙 행동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된다. 한국직업능률개발원은 진로성숙도 검사를 통해 개인이 진로에 대해 계획·준비하는 데 필요한 태도, 능력, 행동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지, 검사결과를 토대로 노력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등을 알려줄 수 있다고 안내한다(커리어넷, 2012). 검사의 하위영역 구성은 다음의 표 Ⅱ-3과 같다.

<표 Ⅱ-3> 진로성숙도 검사에 포함되는 하위영역별 정의(커리어넷, 2012)

영역	하위영역	정의
태도	계획성	자신의 진로의 방향을 설정해 보고 그것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 보는 태도
	직업에 대한 태도	직업의 의미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직업에 중요성을 부여하는 태도
	독립성	진로결정의 책임을 수용하고, 자기 스스로 진로를 탐색하고 선택하려는 태도
능력	자기이해	능력, 흥미, 가치, 신체적 조건, 환경적 제약 등 개인이 진로선택에서 고려해야할 개인적 특성들에 대한 이해 정도
	정보탐색	자신이 진로와 관련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
	합리적 의사결정	스스로가 진로를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
	희망 직업에 대한 지식	자신이 관심을 갖는 직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정도
행동	진로탐색 및 준비행동	자신의 진로를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준비하는 정도

4. 역량강화 모델

1) 역량강화 모델의 정의

역량강화(empowerment)란, 대상자가 현재 갖고 있는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강점중심 접근의 사회복지 실천모델이다(양숙미, 2000). 역량강화는 다차원적으로 사회복지 실천의 모든 대상에 적용될 수 있으며, 과정과 결과의 의미를 동시에 보유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황성철, 2002). 역량강화는 결점에 대한 진단보다는 강점을 강조하고, 취약성의 파악보다는 개인역량의 강화를 기반으로 하며, 문제를 없애기보다는 해결책을 찾는데 역점을 둔다(Miley, O'Melia & DuBois, 2013). 이는 환경에 대응하는 방법을 배우고 환

경의 변화를 주도하여 개인이나 집단이 상대적으로 무기력한 상태에서 힘을 가진 상태로 이동하는 것이다(Gutierrez, 1994). 이러한 관점에서 역량강화는 사람, 조직, 지역사회가 자기 주변 일에 대한 통제성을 획득하고, 기관이나 사회의 민주적 과정에 관여하는 기제 또는 과정이라는 정의(Rappaport, 1987)가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진다. 개인의 역량강화는 개인적인 발전을 통해 나타나며, 긍정적 자기규정뿐 아니라 기술과 능력의 성장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고 있다(이윤화, 2000). 역량강화 모델을 따르는 치료사는 개인의 문제를 클라이언트의 결함으로 보기보다 개인적 역량과 환경적 요구 사이에서 발생하는 불일치 혹은 불균형에서 찾는다. 자원과 기회에의 접근 증가, 강점 확장, 역량 강조 자체가 바로 역량강화이며, 이는 우리의 삶에서 역동적으로 발생한다(양옥경, 김미옥, 1999).

강점(strengths), 적응유연성(resilience), 대화(dialogue), 협동(collaboration)은 역량강화 모델의 핵심개념이라 할 수 있다(황성철, 2002). 강점은 클라이언트의 신체적, 심리적, 영적, 사회환경적, 대인관계적 차원에서 성장을 위해 활용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의미한다(Saleebey, 2012). 적응유연성은 역경에 처한 클라이언트가 다시 일어서 이전의 적응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는 반동력이다(황성철, 2002). 대화는 인간이 자신의 무력함과 권력의 불균형적 배분을 인식하고 의식화 할 수 있게 한다(Freire, 2000). 협동은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관련 당사자가 자원과 의사결정을 공유하여 힘을 합치는 것을 말한다(Graham & Barter, 1999).

2) 역량강화 모델의 실천

역량강화 모델의 실천단계는 현재 상황에 대한 포괄적 이해, 개입활동을 안내하는 실제적 행동 계획, 변화전략에 대한 지속적 평가를 강조한다.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접근은 대화, 발견, 발달의 3단계로 구성된다. 1단계, 대화

단계는 치료사가 클라이언트의 현재 상황, 욕구, 강점을 알아가는 단계이다. 2단계, 발견 단계는 클라이언트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통해 계획을 작성하는 단계이다. 3단계 발달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개입 활동을 수행한다(최원석, 2008).

<표 Ⅱ-4> 역량강화 모델의 절차(정순둘 외, 2007에서 재인용)

단계	활동
대화	초기관여와 관계 형성, 파트너십의 성립
발견	강점 찾기, 자원의 획득 연계
발달	기회의 확장, 지속적 협력, 종결

3) 역량강화 모델의 평가

역량강화 모델의 실천을 평가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다. 평가라는 것이 고정된 시점에서 이루어지는데 반해, 역량강화 모델의 실천은 과정과 결과의 의미를 동시에 갖기 때문이다. 과정을 중시하는 역량강화 모델의 속성은 지속적인 클라이언트의 변화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평가 시점을 정하는 것이 어렵다(정순둘 외, 2007). 때문에 이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과정과 결과를 모두 포함해야 하며, 개인 내적, 대인적, 사회정치적 차원에서의 변화를 실천의 결과로 측정해야 한다. 구티에레스 등(Gutierrez et al., 1998)은 역량강화에 기반 한 프로그램의 효과를 다음의 표 Ⅱ-5와 같이 제시하였다(홍미옥, 2009에서 재인용). 치료사는 역량강화 모델에 대한 평가틀을 만들 때 이 표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표 Ⅱ-5> 역량강화에 기반 한 프로그램의 효과(홍미옥, 2009에서 재인용, p. 14)

개인 내적인 변화	대인적 변화	사회정치적 변화
자기효용	지식/기술	정치적 행동/참여
자기자각	주장	보상
자립심	도움의 요청	기여
존재감	문제해결	환경에 대한 통제감
자존감	새로운 기술 연습	
권리의식	자원평가	
비판적 사고		

4) 장애인을 위한 역량강화 모델의 접근

일반적으로 장애의 개념을 이야기할 때, 개인적 장애모델과 사회적 장애모델의 두 가지로 접근할 수 있다. 개인적 장애모델은 장애문제의 원인이 장애인 개인의 기능적 제약, 신체적 손상, 심리적 손상에서 기인한다고 본다(Brzuzy, 1996). 반면, 사회적 장애모델은 장애문제를 장애인과 사회적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적인 관계에 달려 있다고 보고(Oliver, 1989), 결함을 장애로 만드는 것은 환경이라고 주장한다.

장애인을 위한 역량강화 모델은 이 두 가지 모델을 수렴하여 전체론적 관점에서 개인적 능력 강화와 환경 창조에 초점을 맞춘다. 전체론적 관점은 다음의 여덟 가지 주장을 제시한다.

첫째, 삶의 총체적 맥락에서 인간을 이해해야 한다. 둘째, 손상은 하나의 측면일 뿐이라는 관점이 필요하다. 셋째, 개인적인 도전과 사회적 억압으로서 장애를 이해해야 한다. 넷째, 장애인의 역량강화와 강점에 기초한 실천방법을 실시해야 한다. 다섯째, 장애인이 제시한 목표, 열망, 가치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여섯째, 장애인과 전문가가 상호협력해야 한다. 일곱째, 장애인의

개인적 능력 차이와 질적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 여덟째, 장애인의 책임감과 권리를 인식해야 한다(정순둘 외, 2007, p. 200).

치료사는 장애인이 개인적 힘과 자원을 사회적 힘과 자원에 결합시키도록 도와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의 개인적 능력을 강화시키고, 적절한 환경을 창조해야 한다(Mathews & Seekins, 1987). 개인적 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신체적 능력의 증진, 인지적 능력을 포함한 개인적 지식과 기술 습득, 가치와 목표의 설정에 초점을 둔다. 환경의 창조를 위해서는 장애물로 작용하는 물리적 환경을 변화시키고, 사회적 환경과 체계적 환경을 구성해야 한다. 여기서 체계적 환경은 장애인과 관련된 법률, 정책, 공공적 태도 등을 의미한다. 장애인에 대한 역량강화 모델의 접근은 장애인이 자기 삶에 대해 더 많은 통제력을 갖고, 건강을 증진하고, 긍정적 자기정체성을 유지하고, 만족스러운 사회관계를 형성하며, 사회제도적 장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정순둘 외, 2007).

5) 긍정심리치료와 역량강화 모델

심리학자 셀리그먼(Seligman)은 '진정한 치료는 손상된 것을 고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최선의 가능성을 이끌어 내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셀리그먼에 의해 처음으로 제안된 긍정심리학은, 삶의 질을 높이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긍정적 상태, 긍정적 특질, 긍정적 조직의 세 가지 주제를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 긍정적 상태는 과거에 대한 만족감, 현재에 대한 행복감, 미래에 대한 희망 등을 포함하며, 긍정적 특질은 긍정적 사고, 정서, 행동 양식 등을 뜻한다. 긍정적 조직은 구성원이 행복하고 최적의 기능을 발휘하게 하는 조건과 기능을 갖춘 조직을 말한다(Seligman, 2002). 긍정심리치료는 이 세 가지 중에서 긍정적 상태와 특질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긍정심리치료는 긍정심리학에 심리치료를 적용한 것으로, 인간의 긍정적 특성을 강화하고 강점을 개발함으로써 클라이언트의 잠재력 실현을 돕는다(Compton, 2005). 기존의 심리치료와 달리, 부적응 증상의 제거뿐 아니라 행복증진을 목표로 긍정적 경험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이 특징적이다(권석만, 2008).

셀리그먼과 그의 동료들(2006)은 긍정심리치료의 원리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첫째, 긍정심리치료는 긍정적인 정서에 초점을 둠으로써 클라이언트가 부정적 주의, 기억, 기대를 벗어나 긍정적이고 희망적으로 바뀔 수 있게 한다. 둘째, 긍정심리치료는 클라이언트가 행복감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돕는 외부적, 행동적 기법을 중점적으로 사용한다. 셋째, 긍정심리치료는 강점을 강조하여 클라이언트가 삶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돕는다(박성희, 김진영, 2012에서 재인용).

긍정심리학의 핵심요인은 역량강화 모델과 관계가 깊으며, 이로 인해 긍정심리치료 프로그램이 역량강화에 효과적이라는 연구가 있다(오정영, 2011).

5. 역량강화 음악치료의 메커니즘

1) 음악과 감정능력

음악은 감정능력에 영향을 미친다. 음악은 무의식적이고 생리적인 반응을 통해 감정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의식적인 통제처리에서도 작용한다. 언커퍼(Unkefer, 1990)에 의하면, 음악은 물리적 특성, 대조적 특성, 환경적 특성의 자극을 통해 중추신경계를 비롯한 신경망을 거쳐 지각의 통제처리과정으로 들어가게 된다. 음악의 물리적 특성은 세기, 템포, 음색, 음형 등을 말하며, 이로 인해 클라이언트의 에너지가 변화하고 활성화된다. 대조적 특성은 음

악의 구조와 형식을 말하며, 구조와 질서, 명료, 놀람, 진기 등의 정서적 반응을 나타낸다. 환경적 특성은 음악외적 연상을 말하며, 기억을 연상·회상하고 과거에 경험하였던 정서를 재경험할 수 있게 한다(박지은, 2012에서 재인용). 타우트(Thaut, 1996) 역시 음악의 진동이 가지는 물리적 에너지, 음악 내부적 요소가 가지는 대조적 에너지, 개인적 과거 경험과의 연관에서 유발되는 환경적 에너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개체 안에서 정서반응을 일으킨다고 하였다(박지은, 2012에서 재인용). 음악자극의 물리적, 대조적, 환경적 요소는 하나하나가 정서적 의미를 갖는다기보다, 요소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정서를 유발한다고 볼 수 있다(문지영, 2008).

이정실(2009)은 음악이 감정에 미치는 영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음악은 감정인식능력을 촉진한다. 둘째, 음악은 감정표현력을 촉진한다. 셋째, 음악은 감정의 유연성을 기른다. 넷째, 음악은 과거의 감정 상태와 사건의 기억을 돕는다. 다섯째, 음악은 중요정보에 집중하게 한다. 여섯째, 음악은 감정의 공감력을 향상시킨다. 일곱째, 음악은 감정의 해석력을 자극한다. 여덟째, 음악의 긍정성은 부정적인 감정경험을 수용하도록 돕는다. 아홉째, 음악은 인지적으로 긍정적 전략을 모색하도록 한다.

이와 같이 음악은 다양한 감정능력을 촉진하며, 정서를 안정시키고, 합리적 판단과 행동에 도움을 주게 된다.

2) 감정능력과 역량강화

훈련을 통한 감정능력의 향상은 개인의 역량강화를 실현한다. 메이어와 셀로비(Mayer & Salovey, 1997)는 감정능력을 네 가지 범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첫째, 감정인식 및 평가는 감정을 지각하고 평가·표현하는 것으로, 자기와 타인의 감정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말한다. 둘째, 사고촉진은 감정을 파악해 감정이 주는 중요한 정보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다. 셋째,

감정이해는 감정적 지식을 적용해 감정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능력이다. 넷째, 감정의 반영적 조절은 감정의 개방과 반영, 긍정적 감정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감정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개인의 역량강화와 연결된다. 클라이언트는 훈련을 통해서 적절한 감정적 반응을 배우고, 사고와 감정을 합리적으로 표출할 수 있게 된다. 향상된 감정능력은 자신이 속한 문화적 환경에서 조화롭게 살도록 도우며, 자기와 주변인, 주변 세계에 대한 명확한 파악과 인식을 가져다주게 된다(Averill, 1999). 클라이언트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성장해나가며, 자기이해를 통해 역량강화를 실현할 수 있다.

3) 음악치료와 역량강화

앞서 살펴본 내용과 같이, 음악은 감정능력을 향상시키고, 감정능력의 향상은 개인의 역량강화를 실현한다. 다시 말하면, 음악자극이 역량강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하인리히(Hinrich)는 음악에 대한 정서반응의 치료적 효과에 대해, 클라이언트가 음악을 체험할 때 일어나는 긍정적 감정이 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고 긴장과 두려움을 없애준다고 설명하고 있다. 음악은 정서적 안정감과 자신감을 주고 그것을 강화시키는 한편, 불안, 초조, 우울, 공격성, 좌절감 등의 부정적 감정을 감소시킨다(이소정, 2000에서 재인용). 클라이언트는 음악을 듣거나 만들어가는 경험을 통해 감정적인 과정을 다루게 되며, 여러 형태의 감정을 수용할 수 있게 된다(박선영, 1994). 음악활동을 통한 자기표현은 감정의 배출구가 되고, 이로 인한 자기표현의 촉진은 자기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쳐 클라이언트의 역량을 강화한다. 음악치료에서 즉각적이고 기초적인 성공에 바탕을 둔 자신감은 개인적 역량강화에 도움을 주며, 이는 잘 계획된 음악활동을 통해 향상될 수 있다(고민정, 2008).

6. 역량강화 음악치료의 핵심개념

앞서 살펴본 역량강화 모델의 정의에 비추어 볼 때, 역량강화 음악치료란 클라이언트가 현재 갖고 있는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강점중심의 음악치료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역량강화 모델의 핵심개념인 강점, 적응유연성, 대화, 협동을 역량강화 음악치료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1) 강점

음악치료는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기보다는 성공적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성취감과 자신감을 획득하도록 돕는다. 클라이언트는 음악활동에 참여하는 과정 속에서 음악적 지지와 강화를 통해 만족감을 느끼고, 강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안전한 장을 제공받게 된다(박선영, 1994). 이는 즐거움과 만족감을 제공할 뿐 아니라, 타인과의 공통된 경험을 통해 대인적 역량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클라이언트는 악기연주, 다양한 음악창작을 통해 집단 내에서 강점을 표현하고 이를 구체화 시킬 수 있으며, 다른 집단원으로부터 음악적 지지를 받는 상호작용 속에서 하나의 곡으로 완성해가는 과정을 경험한다.

2) 적응유연성

음악치료에서 음악은 감정의 인식·표현, 문제 통찰, 대처기술 습득을 돕는 매체로 활용된다(Borczon, 1997). 집단 내 음악적 활동은 타인의 판단이나 사회적 기준으로부터 자유로우며, 개인적 지지는 클라이언트의 내적 자원을 강화시켜서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게 한다. 자발적 표현과 자기실현의 과정에서 창조적으로 생성된 음악은 새로운 삶의 차원을

제공하게 되며, 음악적 생성물을 통한 자기표현은 자기역량을 증가시킨다. 이러한 과정은 비관적, 부정적인 자기인식이 새롭게 전환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의 우울과 불안, 죽음에 대한 생각, 대인관계의 어려움, 신체적 고통 등의 표현에 음악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정현주, 2005).

3) 대화

음악치료에서 음악은 인간의 사상, 내면상태, 감정을 대변할 수 있고, 상징적인 표현 도구로 사용될 수 있어 의사소통의 수단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이승현, 2000). 음악은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정서, 감정, 느낌과 만날 수 있도록 촉진하고, 그 경험을 언어화하도록 격려한다(정현주, 2005). 음악을 통하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내적 감정과 생각을 보다 쉽게 표현할 수 있다. 슬픈 감정, 기쁜 감정,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미묘한 감정까지도 음악을 통해 나타낼 수 있다. 언어는 인지적이지만 음악은 감정적이기 때문에 음악치료를 통해 클라이언트의 인지와 감정에 동시에 접근할 수 있어 개인의 생각과 느낌을 보다 풍부하게 표현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치료사는 역량강화 모델의 실천을 위해서 개입할 때 클라이언트의 강점을 파악하기 위해 음악적 대화로 중재할 수 있다. 노래 부르기, 악기 연주, 즉흥 연주 등을 통한 음악적 대화는 클라이언트의 자원과 강점을 알아가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다.

4) 협동

음악적 자극은 인간을 집단에 결속시키며, 각자의 감각, 힘, 감정, 사회적 영향 등에 총체적인 경험을 제공한다. 집단 음악활동은 타인과의 상호적인

관계 속에서 상호작용기술을 익히고, 내적 욕구 통제 능력을 발달시키며, 타인을 존중하는 자세를 갖게 한다. 공통된 음악 활동을 통한 음악적 교류는 자신과 타인을 향한 긍정적 태도를 형성하며, 이를 통해 집단원의 대인적 역량강화가 이루어진다. 타인과 함께 공유하는 음악적 환경은 집단 구성원 간의 사고 일치감과 지지를 통해 자신감을 향상시키고, 타인에 대한 관심을 고양시키고, 삶이 가치 있다는 신념을 제공한다. 이는 사회적 기술 습득, 타인과의 교류기회 제공, 새로운 외부세계에 대한 자신감과 흥미를 갖게 하는 긍정적 의의가 있다(최신형, 2007).

7. 역량강화 음악치료 기법

1) 노래 부르기

노래 부르기는 악기나 다른 도구 없이 목소리만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음악을 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이고 쉬운 방법 중의 하나이다. 노래 안에 가사, 멜로디, 리듬, 화성 등이 모두 함축되어 있어 언어로 표현하는 것보다 자연스럽고 풍부한 표현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박연희, 2007). 개별은 물론 집단이 함께 활동할 수도 있으며, 자신의 목소리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긍정적 자기 인식을 돕는다. 오스틴(Austin, 1998)은 노래 부르기가 고통, 두려움, 분노를 해소하고 기쁨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하였다(이숙영, 2008에서 재인용). 또한, 순간의 느낌을 노래 속에 담아낼 수 있어 노래하는 사람의 함축적이고 역동적인 감정, 기분, 태도를 반영하기도 한다(한희원, 2003). 클라이언트는 노래 부르기를 통해 손상된 자아를 회복시키고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며, 자신감을 갖고 자기를 표현하게 된다. 노래를 통해 타인과 융화되는 경험은 사회적응 기술을 증진시킨다(임영숙, 2001). 치료사는 노래 부르기를 통해 클라이언트와 초기관계를 형성하고, 강점을

지지하기 위한 기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2) 음악 감상

브루샤(Bruscia)는 음악 감상에 대해, 음악을 듣고 그 경험을 침묵, 말, 기타 양식을 통해 반응하는 형태라고 정의하였다(이수경, 2005에서 재인용). 음악 감상은 주로 클라이언트의 정서와 감정을 변화시키거나, 현재 가지고 있는 감정을 강화시키기 위해 실시한다(정현주, 2005). 음악치료적 기법으로서의 음악 감상은 부담을 주지 않는 친근하고 편안한 환경을 조성하여 긴장 이완, 타인과 생각 및 감정 공유, 감정 촉발, 자기 탐구 등의 치료적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 감상 음악을 선정할 때는 클라이언트의 성별, 과거의 경험, 음악에 대한 친숙성, 음악적 선호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이수경, 2005). 신체와 정서의 긍정적, 심미적인 경험은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고 자신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가능하게 하여 개인 역량강화를 돕는다(최신형, 2007).

3) 가사 만들기

가사 만들기는 기존 곡에서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가사를 바꾸어 새로운 노래를 만드는 방법이다. 클라이언트는 가사를 만드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내면을 성찰하고, 억압된 감정과 욕구를 표현하게 된다. 창작의 과정 속에서 재창조된 결과물을 통해 클라이언트는 성취감과 자신감을 갖게 되며, 이를 통해 개인적 역량으로서의 자기효능감이 강화된다(문영애, 2002). 집단에서의 가사 만들기는 또래 집단의 반응과 지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청소년에게 창의적 아이디어를 유도하게 되며, 이는 집단 내의 신뢰감을 형성하여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내면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다(최소림, 2006). 집단에서의 지지와 강화를 통한 만족감은 활동의 참여를 촉진시키고, 클라이언트가 더욱 적극적으로 자기표현을 할 수 있게 하며, 자신감을 향상시킨다. 이를 통해 클라이언트는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재인식하며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킬 수 있다(임현정, 2009). 가사 만들기는 자기표현력 증진, 자존감 증진, 의사소통능력 향상, 억압된 요소의 회복, 내면에 대한 통찰력 강화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창조적이고 효과적인 음악치료 기술이다(Edgerton, 1990). 치료사는 가사 만들기를 통해 클라이언트가 보유하고 있는 강점과 자원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개입할 수 있게 된다.

4) 가사 분석하기

가사 분석하기는 노래를 듣고 그 노래에 대한 개인의 생각이나 느낌을 치료사 또는 집단 구성원과 함께 나누는 방법이다. 가사의 상징, 은유, 비유 등에 대한 표현은 클라이언트가 인식하지 못하거나 회피했던 감정과 생각을 수용하게 한다. 이는 스스로 음악 안에서 위안을 받게 하며, 클라이언트의 과거 경험을 치료 현장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한다(이규정, 2002). 경험에 대한 인정과 지지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대한 타당성을 제공해주며, 이를 통해 형성된 집단 내의 유대감은 긍정적인 정서 유발을 촉진시키고 대인적 역량강화에 영향을 미친다. 가사에 내재된 여러 가지 메시지를 통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분석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내면을 정리하는 과정은 과거 경험에 질서를 가져오게 해 삶을 객관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한다. 송영미(2003)는 가사 분석하기를 중심으로 한 집단 음악활동이 불안, 우울, 낮은 자아존중감, 부정적 자아상 형성, 좌절, 실망, 무력감, 죄의식,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공포감 등의 문제를 지닌 클라이언트에게 효과적이라고 보고하였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경기도 소재 가 중학교와 나 중학교의 특수학급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을 각각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선정하였다. 실험집단은 3개의 소집단으로 나누어 운영되었으며, 각 소집단은 학년별로 5인씩 구성되어 총 15명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통제집단 역시 학년별로 5인씩 구성된 15명으로 이루어졌다.

<표 Ⅲ-1> 집단의 구성

	[가] 중학교(실험집단)			[나] 중학교(통제집단)
	A	B	C	D
인원(명)	5	5	5	15

대상자의 구체적인 특성은 다음의 표 Ⅲ-2와 같으며, 표 내용 중 '특이사항'란은 해당 학생을 담당하고 있는 특수교사의 진술을 토대로 작성하였다. '장래희망'란은 음악치료 중재 프로그램 1회기에서 대상자가 각자 자기를 소개할 때 사용한 직업별칭을 참고해 기재하였으며, 통제집단의 경우 음악치료 중재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래희망을 알 수 없어 공란으로 표기하였다.

<표 Ⅲ-2> 대상자 정보

구분	이름	성별	생년월일	학년	장애유형	등급	장래희망	특이사항
A-1	고○○	여	00.01.30.	1	언어장애	3	모델	수줍음이 많음
A-2	김○○	남	00.07.10.	1	지적장애	3	회사원	안면장애, 부정적
A-3	이○○	남	99.03.29.	1	지적장애	2	경찰관	다운증후군
A-4	이○○	남	99.05.25.	1	지적장애	3	버스기사	품행장애, 도벽
A-5	한○○	남	00.07.10.	1	지적장애	3	야구선수	무기력함
B-1	권○○	남	99.06.15.	2	자폐성장애	3	기타리스트	쌍둥이
B-2	권○○	남	99.06.15.	2	자폐성장애	3	경찰관	
B-3	김○○	남	99.05.31.	2	지적장애	2	요리사	자주 중얼거림
B-4	최○○	남	99.04.11.	2	청각장애	2	축구선수	입모양을 보고 알아들음
B-5	황○○	남	98.04.04.	2	지적장애	3	트럭기사	열성적
C-1	곽○○	남	96.10.29.	3	지적장애	2	사회복지사	감정기복 심함, 우울, 피해의식
C-2	박○○	남	97.09.03.	3	지적장애	3	운동선수	반향어
C-3	신○○	남	98.06.11.	3	자폐성장애	2	회사원	모노톤의 반복어
C-4	임○○	여	97.08.29.	3	지적,뇌병변장애	1	사회복지사	레녹스가스토증후군
C-5	최○○	여	98.01.25.	3	지적장애	2	제빵사	-
D-1	고○○	여	99.03.15.	1	지적장애	3	-	선택적 함묵증
D-2	김○○	남	00.06.09.	1	지적장애	3	-	-
D-3	박○○	남	00.09.16.	1	청각장애	5	-	의사소통 비교적 잘 됨, 성실함
D-4	이○○	남	96.08.18.	1	지적,뇌병변장애	2	-	-
D-5	이○○	남	01.02.20.	1	지적장애	3	-	말이 매우 많음

구분	이름	성별	생년월일	학년	장애유형	등급	장래희망	특이사항
D-6	김○○	남	99.09.13.	2	지적장애	3	-	-
D-7	김○○	여	98.10.13.	2	청각장애	1	-	언어장애, 인공와우수술, 보청기 착용, 상동 행동
D-8	소○○	남	99.04.30.	2	지적장애	3	-	수행수준 높음
D-9	이○○	남	99.11.14.	2	자폐성장애	3	-	집중도 낮음
D-10	정○○	남	99.06.06.	2	지적장애	3	-	틱장애
D-11	김○○	남	98.08.31.	3	지적장애	3	-	수행수준 높음
D-12	김○○	여	98.02.17.	3	지적장애	1	-	장애등급보다 수행수준 높음
D-13	전○○	여	97.12.18.	3	뇌병변장애	1	-	예민한 성격
D-14	정○○	남	98.01.31.	3	지적장애	3	-	언어장애
D-15	한○○	남	98.07.20.	3	시각장애	4	-	오른쪽 눈 실명

다음의 표 Ⅲ-3은 대상자를 성별, 장애유형별, 학년별로 분류한 것이며, 표 Ⅲ-4는 장애등급별, 표 Ⅲ-5는 장래희망별로 각각 분류한 것이다.

<표 Ⅲ-3> 성별, 장애유형별, 학년별 대상자 분류

구분	성별		장애유형별							학년별		
	남	여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청각 장애	시각 장애	뇌병변 장애	언어 장애	중복 장애	1	2	3
실험집단	12	3	9	3	1	0	0	1	1	5	5	5
통제집단	11	4	9	1	2	1	1	0	1	5	5	5

단위: 명

<표 Ⅲ-4> 장애등급별 대상자 분류

구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실험집단	1	6	8	-	-	-
통제집단	3	1	9	1	1	-

단위: 명

<표 Ⅲ-5> 실험집단 장래희망별 대상자 분류

운동선수	회사원	경찰관	운전기사	사회복지사	요리·제빵사	모델	기타리스트
3	2	2	2	2	2	1	1

단위: 명

2. 연구 기간 및 장소

2013년 4월 19일(금)부터 동년 5월 14일(화)까지 이루어졌으며, 주 2회의 실험을 4주 동안 총 8회기로 진행하였다. 해당 중학교 도움반 교실에서 1명의 음악치료사에 의해 매 회기 45분씩 실시되었다.

<표 Ⅲ-6> 회기별 프로그램 실시 일정

1	2	3	4	5	6	7	8
4/19(금)	4/23(화)	4/26(금)	4/30(화)	5/3(금)	5/7(화)	5/10(금)	5/14(화)

3.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특수학급 학생의 진로성숙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초등학생용 진로성숙도 검사'(정익중, 임진영, 황매향, 2011)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진로성숙도 검사를 토대로 개발되었으며,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문항수가 많고 어려웠던 검사를 초등학생의

발달수준과 이해력 수준에 맞추어 수정·보완한 것이다. 본래 장애학생은 비장애학생과 지적수준에 차이가 있어, 이를 고려하여 특별히 개발한 검사도구를 사용해야만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장애학생용으로 개발·보급된 진로성숙도 검사가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장애학생이 응답할 수 있을 정도의 문항난이도를 고려하여 중학생의 실제 연령보다 낮은 초등학생용 검사도구를 사용해 실험하였다. 본 검사는 계획성, 자기이해, 일에 대한 태도, 독립심의 4개 하위영역이 22개 문항, 5점 Likert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전혀 아니다' 1점, '아니다' 2점, '그저 그렇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까지 점수를 주어 채점한다. 각 영역당 문항 구성은 표 Ⅲ-7과 같다. 검사를 개발한 정익중 등은 예비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를 이용해 영역별 신뢰도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역채점 문항은 2, 3, 4, 7, 9, 10, 12, 16, 17, 19, 21, 22번이다.

<표 Ⅲ-7> 초등학생용 진로성숙도 검사 문항 구성 및 신뢰도(정익중, 임진영, 황매향, 2011)

영역	문항 번호	문항 수	Cronbach's Alpha
계획성	5, 8, 11, 13, 14, 18, 20	7문항	.806
자기이해	1, 6, 10*, 15, 16*, 19*	6문항	.699
일에 대한 태도	2*, 4*, 17*, 21*, 22*	5문항	.718
독립심	3*, 7*, 9*, 12*	4문항	.704

*역채점 문항

신뢰도 검사는 동일한 요인 또는 항목을 측정하는 복수의 문항들에 대한 응답이 얼마나 일관성 있게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하는 척도이다. 동일 요인을 측정하고자 의도한 문항에 대해서 상반된 응답이 도출된다면, 연구 데이터 전체를 신뢰할 수 없게 된다. 본 연구를 위해 실시한 진로성숙도 검사에서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신뢰도를 산출한 결과, 영역별 Cronbach's

Alpha 값은 계획성이 .939, 자기이해가 .868, 일에 대한 태도가 .781, 독립심이 .887로 나타났다. 이는 측정도구 신뢰도의 허용 하한치인 .60 이상으로, 해당 검사의 결과에 충분한 신뢰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표 Ⅲ-8> 초등학생용 진로성숙도 영역별 신뢰도

구분	계획성	자기이해	일에 대한 태도	독립심
Cronbach's Alpha	.939	.868	.781	.887

4. 연구 절차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실험-통제집단 간 사전사후 검사설계로 실시하였다.

먼저, 역량강화 모델에 기초한 음악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한 3개의 실험집단과 아무 중재도 하지 않은 통제집단을 대상으로 1회기 중재 전에 사전검사를 실시하였다. 사전검사 결과는 이어질 사후검사값 비교의 기준점으로 삼았으며,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동질성 검정을 위한 데이터 확보를 위해 활용되었다. 각 아동의 선천적인 특성에 의해 실험 효과가 희석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아동의 중재 전 수치가 통계적으로 유사해야하기 때문이다.

이후, 8회기 동안 실험집단에 대해서만 처치를 수행하였고, 8회기 종료 후에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대한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앞선 동질성 검정에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동질성이 확보되었다면, 사후검사에서 나타나는 양 집단의 유의미한 수치 차이는 실험 처치에 의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표 Ⅲ-9> 연구 설계 모형

구분	사전검사	실험처치	사후검사
실험집단	O_1	X	O_2
통제집단	O_3		O_4

O_1, O_3: 사전검사(초등학생용 진로성숙도 검사)
O_2, O_4: 사후검사(초등학생용 진로성숙도 검사)
X: 실험처치(역량강화 모델에 기초한 음악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

2) 자료 처리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해 분석하였다. 가설 검정을 위한 유의수준은 $p<.001$, $p<.01$, $p<.05$로 단계적으로 정의였으며, 임계치는 $p<.05$로 정의하였다. 구체적인 통계처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사이의 평균차이 검정을 통한 동질성 파악을 위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진로성숙도 사전검사에 대하여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둘째, 실험집단의 진로성숙도 검사 총점 변화량과 통제집단의 총점 변화량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사후검사 총점에 대하여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셋째, 음악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의 진로성숙도 검사의 영역별 점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사후검사 점수에 대하여 각각 대응표본 t-test를 실시하고 각 집단 별로 유의미한 수치 변화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3) 음악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

본 연구의 프로그램은 총 8회기로 진행되었으며, 활동 구성은 앞서 표 Ⅱ-4 '역량강화 모델의 절차'에서 언급했던 대화, 발견, 발달의 단계에 따랐다.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회기에서는 ① 사전검사로 진로성숙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② 각자 되고 싶은 직업 또는 그 직업을 가진 사람의 이름 등을 별칭으로 정하여 명찰을 만들었다. ③ 김건모의 'My Son' 노래에 맞춰 가사를 만들어 자신의 별칭을 차례대로 소개하였다. ④ 동요 '돌과 물'의 가사를 개사하여 집단원의 별칭을 노래로 부르고 외웠다.

2회기에서는 ① 류이치 사카모토의 'Rain'을 감상하며 폭풍우가 치는 바다의 심상을 떠올렸다. ② 난파선에 10명이 타고 있을 때, 2개의 구명보트에 탈 수 있는 6명의 생존 인원과, 4명의 희생 인원에 대해서 개인순위를 매기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처음 배에 타고 있는 10명은 1회기에서 집단원이 각자 장래희망으로 택했던 직업을 포함한 다양한 직업군으로 선정하였다. ③ 5명의 집단원이 한 팀이 되어 토론을 통해 공통된 팀 순위를 선정하였다. ④ 그리그의 '아침의 기분'을 감상하며 개인 날의 심상을 떠올리고 갈등상황을 해소하였다.

3회기에서는 ① god의 '길' 노래를 부르고 가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돈', '명예',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나누었다. ② 직업가치관의 의미를 알아보고 덜 중요한 것부터 하나씩 선택해서 휴지통에 버리는 활동을 진행하였다. 직업가치관은 진로성숙도 검사 항목을 참고하여 선정했으며, 흥미나 적성에 잘 맞는 직업, 명예나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직업,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직업, 돈을 많이 버는 직업, 좋은 동료관계에서 일할 수 있는 직업, 많은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직업, 자기개발을 많이 할 수 있는 직업, 안정적이며 실직의 위험이 적은 직업, 여가를 활용할 시간이 충분한

직업, 자유롭고 타인의 간섭이 적은 직업,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직업,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바라시는 직업의 12가지이다. ③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가치관이 무엇인지 공유하고 그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4회기에서는 ① 창작곡 '특별한 사람'을 배우고 노래를 익혔다. ② 각 클라이언트에게 집단원 전체가 돌아가며 장점을 이야기 해주고, 해당 내용을 가사로 만들어서 불렀다. ③ 각자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직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5회기에서는 ① 크라잉 넛의 '오 필승 코리아'를 부르고 월드컵 경기를 예로 토너먼트 방식에 대해 알아보았다. ②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개발한 '지적장애인용 그림직업흥미검사'의 그림쌍을 이용하여 토너먼트 방식으로 각자 선호하는 직업을 선택하였다. ③ 최종으로 선택한 직업이 무엇인지 공유하고 그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6회기에서는 ① 여행스케치의 '산다는 건 다 그런 게 아니겠니'를 부르고 시간의 흐름, 타임머신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② 효과음 '천사의 등장'을 들으며 미래의 내 모습과 구체적인 일과를 상상해보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③ 미래의 내가 되어 현재의 나에게 '산다는 건 다 그런 게 아니겠니' 노래를 불러주었다. ④ 꿈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간단한 자성예언의 메시지를 만들고 암송하였다.

7회기에서는 ① 인순이의 '거위의 꿈' 노래를 부르고 각자의 장애와 연관지어 구체적인 꿈의 내용과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8회기에서는 ① 처진 달팽이의 '말하는 대로' 노래를 부르고 생각한 대로 또는 말하는 대로 됐던 경험을 나누었다. ② 말하는 대로 이루어짐을 상기하고, 각자의 미래 명함을 만든 후 나누어 가졌다. ③ 사후검사로 진로성숙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각 회기가 끝난 후에는 느낌을 나누고 차시를 예고하였다. 주요내용은 다음의 표 Ⅲ-10과 같으며, 표 Ⅱ-5 '역량강화에 기반 한 프로그램의 효과'의

개인 내적인 변화, 대인적 변화, 사회정치적 변화에서 제시하는 세부항목을 함께 기재하였다.

<표 Ⅲ-10> 음악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구성

역량강화 단계	회기	활동 주제	과제 영역	활동 내용	사용 음악	역량강화에 기반 한 프로그램 효과
대화	1	직업 별칭	자기표현, 라포형성	• 직업별칭 짓기 • 별칭 소개하기(송라이팅) • 별칭 노래 릴레이하기	김건모의 'My Son', 동요 '돌과 물', '동물농장'	자기효용, 자기자각
	2	난파선 구조	직업가치관 탐색	• 심상 떠올리기 • 개인순위 매기기 • 팀 순위 매기기 • 발표하기 • 심상 떠올리기	류이치 사카모토의 'Rain', 그리그의 '아침의 기분'	비판적 사고, 주장, 문제해결, 자원평가
	3	생각 버리기	직업가치관 탐색	• 노래 부르고 가사 분석하기 • 덜 중요한 가치관 버리기 • 이야기 나누기	god의 '길'	자기자각, 자원평가
발견	4	특별한 사람	강점 찾기	• 한 사람씩 돌아가며 장점 세례해주기 • 한 사람씩 노래 불러주기	창작곡 '특별한 사람'	존재감, 자존감, 보상, 기여
	5	직업 월드컵	직업 탐색	• 노래 부르기 • 토너먼트로 직업 선택하기 • 이야기 나누기	크라잉 넛의 '오 필승 코리아'	자기효용, 자기자각
발달	6	2033 타임 머신	진로 탐색	• 심상 떠올리기 • 장래의 하루를 정해 하루 생활 구체적으로 떠올리기 • 긍정적이고 흡족한 미래상으로 수정하기 • 자성예언하기	여행스케치의 '산다는 건 다 그런 게 아니겠니', 효과음 '천사의 등장'	자기효용, 자기자각, 자립심, 자존감
	7	거위의 꿈	자기 성찰	• 노래 부르기 • 가사 토의하기 • '○○의 꿈' 나누기	인순이의 '거위의 꿈'	자기효용, 자기자각, 존재감
	8	꿈의 명함	진로 선택	• 노래 부르고 가사 분석하기 • 명함 만들기 • 명함 나누기	처진 달팽이의 '말하는 대로'	자립심, 자존감

Ⅳ. 연구 결과

1. 실험-통제 집단 간 사전 동질성 검정

실험처치 전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진로성숙도 점수가 동일한지의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사전검사 수치에 대한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다음의 표 Ⅳ-1과 같이 실험집단은 계획성이 평균 약 3.50점, 자기이해가 약 3.76점, 일에 대한 태도가 약 3.64점, 독립심이 약 3.10점, 그리고 전체 평균이 약 3.53점으로 나타났다. 통제집단은 계획성이 평균 약 3.50점, 자기이해가 약 3.57점, 일에 대한 태도가 약 3.75점, 독립심이 약 3.17점, 그리고 전체 평균이 약 3.51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기술통계 결과를 통해 살펴본 독립표본 t-test 결과에 따르면, t=-.605~.864이고 전 영역의 p-value는 p<.05 수준을 만족시키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p>.05)으로 나타났다. 즉, 실험 전의 두 집단은 서로 동질적인 집단임을 알 수 있다.

<표 Ⅳ-1>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 검정

영역	실험집단(n=15)	통제집단(n=15)	t	p-value
	평균(표준편차)			
계획성	3.50(.49)	3.50(.54)	-.051	.960
자기이해	3.76(.60)	3.57(.60)	.864	.395
일에 대한 태도	3.64(.54)	3.75(.42)	-.605	.550
독립심	3.10(.70)	3.17(.71)	-.259	.798
전체	3.53(.31)	3.52(.34)	.102	.920

*p<.05

2.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진로성숙도 사전사후 비교

본 연구의 첫 번째 연구 문제인 역량강화 모델에 기초한 음악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진로성숙도검사의 수치 변화량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인지 알아보고자,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후검사 점수 평균차를 기준으로 한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표 Ⅳ-2>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진로성숙도 독립표본 t-test 결과

영역	실험집단(n=15)	통제집단(n=15)	t	p-value
	평균(표준편차)			
전체	3.94(.29)	3.58(.28)	3.446	.002**

**p<.01

그 결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사후검사 수치가 t=3.446,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전검사 시에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이 동질의 집단이었으나, 사후검사 시에는 실험처치 효과에 의해 실험집단이 더 나은 수준으로 향상되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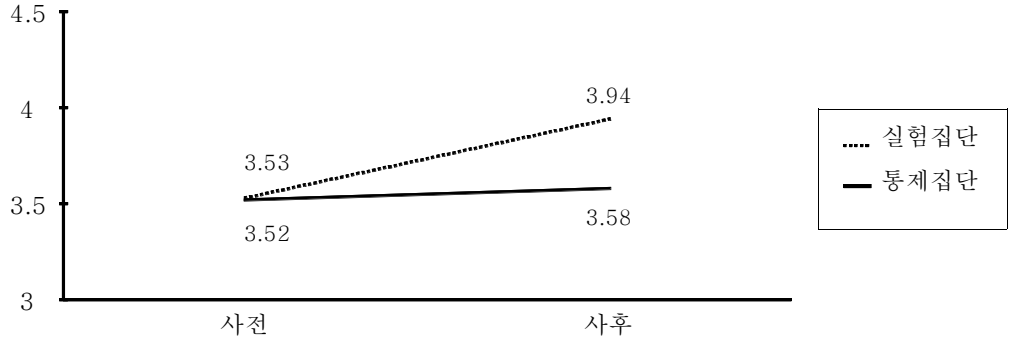
둘째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진로성숙도 사전사후 검사 총점에 대한 대응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실험집단은 사후검사 시 평균 3.94점 가량을 기록하여 사전검사의 평균 약 3.53점에 비해 약 0.41점이 증가하고, t=-8.513, p<.001을 보여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의 사전사후 검사 간 수치의 차이를 보여주었다. 이는 실험처치가 진로성숙도 검사 수치를 유의미한 정도로 상승시키는 정(+)의 효과를 보였음을 확인시켜주는 결과이다. 반면, 통제집단은 사후검사 시 평균 3.58점 가량을 기록하여 사전검사의

평균 약 3.52점과 거의 유사하고, t값 또한 -2.048에 그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사전사후 간 수치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즉, 실험집단이 실험 처치 후 명시적인 진로성숙도 검사 수치의 증가라는 효과를 거둔 반면, 실험 처치가 없었던 통제집단은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수치 간에 사실상 의미 있는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표 Ⅳ-3>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내 진로성숙도 대응표본 t-test 결과

영역	실험집단(n=15)				통제집단(n=15)			
	평균(표준편차)		t	p-value	평균(표준편차)		t	p-value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전체	3.53(.31)	3.94(.29)	-8.513	<.001***	3.52(.34)	3.58(.28)	-2.048	.060

***p<.001



<그림 Ⅳ-1>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사후 검사 평균변화

3. 실험집단 대상자별 진로성숙도 사전사후 비교

실험집단 15명의 대상자 각각에 대해 역량강화 모델에 기초한 음악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영향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 대상자별로 사전사후 검사 점수에 대한 대응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대상자 A-2, A-3, A-4, B-1, B-3, B-5, C-5의 경우 $p<.05$ 수준에서 사전사후 검사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대상자 C-2, C-3은 $p<.01$ 수준에서 사전사후 검사 간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의 표 Ⅳ-4와 같다.

<표 Ⅳ-4> 실험집단의 대상자별 진로성숙도 대응표본 t-test 결과

대상자	평균(표준편차)		t	p-value
	사전	사후		
A-1	3.05(.58)	3.27(.70)	-1.555	.135
A-2	3.18(1.10)	3.64(.95)	-2.664	.015*
A-3	3.82(1.18)	4.32(.95)	-2.730	.013*
A-4	3.50(.96)	3.95(.72)	-2.485	.021*
A-5	3.73(.83)	3.86(.71)	-1.821	.083
B-1	3.59(1.50)	4.05(.95)	-2.339	.029*
B-2	3.86(1.21)	4.18(.96)	-2.084	.050
B-3	4.09(1.34)	4.50(.60)	-2.113	.047*
B-4	3.77(.81)	3.95(.84)	-1.449	.162
B-5	3.59(1.14)	3.91(.97)	-2.309	.031*
C-1	3.55(.91)	3.77(.87)	-1.742	.096
C-2	3.36(1.18)	4.05(.79)	-2.944	.008**
C-3	3.23(1.41)	3.95(.90)	-2.935	.008**
C-4	3.55(1.22)	3.95(.79)	-2.001	.059
C-5	3.05(1.21)	3.77(.92)	-2.837	.010*

*p<.05 **p<.01

4.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진로성숙도 영역별 사전사후 비교

앞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진로성숙도에 대해, 사후검사에서 두 집단이 $p<.01$ 수준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실험처치 전과 후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실험처치의 효과를 입증한다.

이에 본 연구자는 두 번째 연구 문제인 역량강화 모델에 기초한 음악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진로성숙도의 하위영역 각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영역별 진로성숙도에 대한 변화량의 차이가 실험-통제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크기인지 알아보기 위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영역별 사후검사 점수에 대하여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계획성 영역과 독립심 영역의 경우 의미 있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이해 영역은 $p<.01$ 수준, 일에 대한 태도 영역은 $p<.05$ 수준에서 각각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자기이해 영역과 독립심 영역에 있어서 실험집단이 실험처치를 통해 처치 전의 집단과 수치적으로 상이한 집단으로 변화하였음을 보여주는 결과로서, 해당 영역에서 실험처치의 효과를 입증한다.

<표 Ⅳ-5>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영역별 진로성숙도 독립표본 t-test 결과

영역	실험집단(n=15)	통제집단(n=15)	t	p-value
	평균(표준편차)			
계획성	3.73(.47)	3.56(.50)	.959	.346
자기이해	4.30(.33)	3.67(.55)	3.833	.001**
일에 대한 태도	4.12(.43)	3.76(.42)	2.324	.028*
독립심	3.55(.54)	3.28(.64)	1.229	.229

*p<.05 **p<.01

둘째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영역별 진로성숙도 사전사후 검사에 대한 대응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결과는 다음의 표 Ⅳ-6과 같다.

<표 Ⅳ-6>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내 영역별 진로성숙도 대응표본 t-test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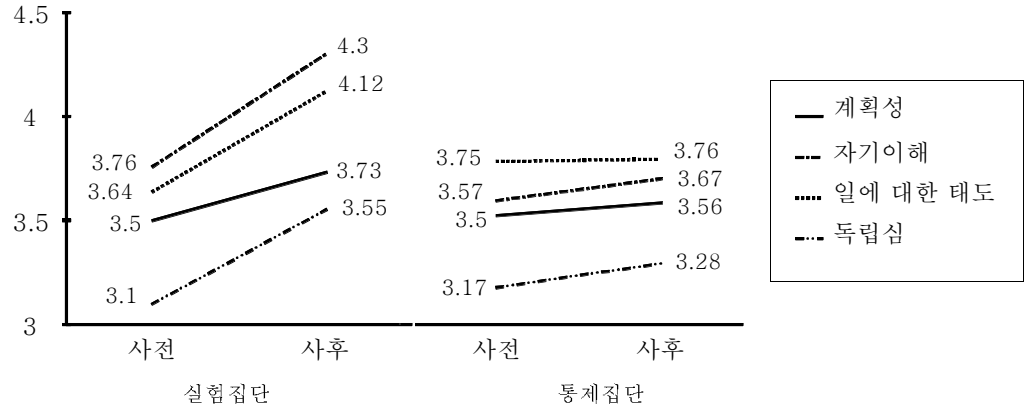
영역	실험집단(n=15)				통제집단(n=15)			
	평균(표준편차)		t	p-value	평균(표준편차)		t	p-value
	사전	사후			사전	사후		
계획성	3.50(.49)	3.73(.47)	-3.511	.003**	3.50(.54)	3.56(.50)	-1.247	.233
자기이해	3.76(.59)	4.30(.33)	-4.859	<.001***	3.57(.60)	3.67(.55)	-2.553	.023*
일에 대한 태도	3.64(.54)	4.12(.43)	-4.842	<.001***	3.75(.42)	3.76(.42)	-.211	.836
독립심	3.10(.70)	3.55(.54)	-3.603	.003**	3.17(.71)	3.28(.64)	-1.825	.089

*p<.05 **p<.01 ***p<.001

실험집단의 경우, 사전사후 검사 간에 있어서 계획성 영역은 t=-3.511, p<.01, 자기이해 영역은 t=-4.859, p<.001, 일에 대한 태도 영역은 t=-4.842, p<.001, 독립심 영역은 t=-3.603,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사전사후 검사 간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다. 즉, 각 영역별로 실험처치 전과 후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의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반면, 통제집단은 계획성 영역, 일에 대한 태도 영역, 독립심 영역에서 각각 t=-1.825~-.211,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p>.05)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기이해 영역의 경우 실험처치를 하지 않았을 때에도 t=-2.553, p<.05로서 최소 유의수준을 만족시킴에 따라 사전사후 검사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제집단의 자기이해 영역에 있어서 실험처치와는 별도의 어떤 외부효과가 작용하여 수치를 끌어올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앞서 실시한 독립표본 t-test 결과에서는

자기이해 영역의 사후검사에서 p<.001 유의수준을 만족시키는 큰 차이가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통제집단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실험집단이 실험처치를 통해 처치 전의 집단과 수치적으로 상이한 집단으로 변화하였음을 보여주는 결과로서, 해당 영역에서 실험처치의 효과를 입증한다. 다음의 그림 Ⅳ-2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사후 검사 영역별 평균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Ⅳ-2>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사후 검사 영역별 평균변화

대응표본 t-test 결과, 진로성숙도 네 개의 하위영역 모두 실험처치 전과 후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의 차이를 나타냈다. 이는 역량강화 음악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진로성숙도의 영역별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단, 대응표본 t-test 결과 실험집단 자체에서는 영역별로 사전사후 검사 간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음에도, 독립표본 t-test를 통한 통제집단과의 사후검사 비교에서는 계획성과 독립심 영역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이유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통제집단에 실험 진행 중 통제되지 않은 외부 효과가 일부 개입하여, 통제집단의 계획성과 독립심을 일정부분 향상시킨데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Ⅴ.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역량강화 모델에 기초한 음악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중학교 특수학급 학생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이를 위해 초등학생용 진로성숙도 검사를 사용해 실험-통제집단 간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역량강화 음악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사후검사 점수를 비교했을 때,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역량강화 음악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대상자의 사전사후 검사 점수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는 역량강화 음악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진로성숙도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

또한, 실험집단의 대상자별 사전사후 변화를 비교했을 때, 역량강화 음악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대상자 15명 전원의 검사 평균점수가 향상되었다. 특히 A집단 3명, B집단 3명, C집단 3명의 경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이는 역량강화 음악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진로성숙도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재차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

둘째, 역량강화 음악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의 영역별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영역별 사후검사 점수를 비교했을 때, 두 집단이 자기이해 영역 $p<.01$ 수준, 일에 대한 태도 영역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역량강화 음악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대상자의 계획성 영역, 자기이해 영역, 일에 대한 태도 영역, 독립심 영역에서 사전사후 검사 점수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

났다. 이는 역량강화 음악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진로성숙도의 계획성 영역, 자기이해 영역, 일에 대한 태도 영역, 독립심 영역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단, 자기이해 영역의 경우 역량강화 음악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제공받지 않은 통제집단에서도 유의미한 향상이 나타났다. 그러나 실험집단, 통제집단 간 유의수준에는 차이가 있었으며, 역량강화 음악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제공받았을 때에 더 많은 향상을 보였다. 또한, 영역별 독립변인 t-test 결과 계획성과 독립심 영역이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는, 통제집단에서의 자연성숙, 재검사로 인한 학습효과, 기타 외재변인 등이 통제집단의 계획성과 독립심 영역에 영향을 미쳤음을 추측할 수 있으며, 사례수가 적은 한계점으로 인해 통제집단에서의 소폭의 변화만으로도 실험집단의 변화 정도가 희석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실험집단의 계획성 영역과 독립심 영역에서 사전사후 검사 점수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난 만큼, 역량강화 음악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진로성숙도의 계획성 영역과 독립심 영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론적으로, 역량강화 음악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진로성숙도의 네 가지 영역 전체의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으며, 영향의 정도는 영역에 따라 다름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2. 제언

본 연구에서는 역량강화 모델에 기초한 음악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중학교 특수학급 학생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역량강화 음악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 중재 결과, 대상자는 진로성숙도 및 진로성숙도 하위영역에서 향상된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의 방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통제집단 사전사후 검사로 설계하였으며, 중재 전후에 각

1회의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별도의 추수검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효과의 지속성을 확인할 수 없어 장기적인 영향력을 알 수 없다. 또한, 한 달 이내의 기간에 동일한 질문지를 사용하여 재검사로 인한 연습효과의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었으며, 이로 인한 영향력을 예측할 수 없다.

둘째, 특수교육 환경상 한 개 중학교에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충분한 사례수 확보가 어려워 두 개의 중학교에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각각 구성하였다. 실험 전 사전검사를 통한 집단 간 평균차이 검정 시에 두 집단이 동질의 집단으로 나타났으나, 실험과정에서 각기 다른 환경에 노출되어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셋째, 사례수가 많지 않아 일반화에 제한이 있으리라 여겨진다. 향후 사례수를 보완하여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후속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장애영역에 따라 문장이해 수준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장애영역별, 등급별 충분한 사례수를 확보한다면, 각 분류별로 의미 있는 결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장애학생의 진로성숙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비장애 초등학생용 진로성숙도 검사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장애학생의 경우 비장애학생과 달리 개인별 발달수준과 이해력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장애학생을 위해 별도로 개발된 검사도구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에 표준화된 '장애학생용 진로성숙도 검사'의 개발이 요구되며, 이를 활용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바이다.

참고문헌

강재태, 배종훈, 강대구(2003). **진로지도의 이론과 실제**. 서울: 교육과학사.

고민정(2008). 우울성향 여대생의 자기효능감 증진에 대한 즉흥연주 효과성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과학기술부(2009).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내실화 방안**. 2013년 5월 16일 검색. http://www.mest.go.kr/web/990/ko/board/view.do?bbsId=69&boardSeq=18673

교육과학기술부(2012). **2012 특수교육통계**. 2013년 5월 1일 검색. http://www.mest.go.kr/web/1111/ko/board/view.do?bbsId=150&boardSeq=31161&mode=view

국립특수교육원(2009). **특수교육학 용어사전**. 서울: 하우.

권석만(2008). **긍정심리학**. 서울: 학지사.

김경희(2007). 중학생들의 진로의식과 진로상담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금오공과대학교 교육대학원.

김민환(2006).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중학교 학생들의 진로성숙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목포대학교 교육대학원.

김은하(2013). 개인중심계획을 활용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지적장애 중학생의 진로태도, 성취동기 및 가족역량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김정혜, 최성욱(2012). 특수학급 교사의 통합학급 교사와의 협력경험에 대한 사례연구. **교사교육연구, 51**(3), 488-506.

김종운(2012). 게임 활용 진로탐색 집단상담이 대안학교 중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청소년학연구, 19**(7), 215-241.

나해숙(2002). 게슈탈트 집단 음악상담이 내담자의 우울 감소에 미치는 효

과. **상담학연구, 3**(2), 385-401.

문영애(2002). 부적응 학생들의 정서변화를 위한 음악의 치료적 접근: 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문지영 (2008). 음악외적 요인과 음악에 대한 정서반응간의 관련성 연구. 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기영(2002). 진로탐색 프로그램이 중학교 특수학급 학생의 자기결정력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선영(1994). 음악치료의 구조와 치료실체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성희, 김진영(2012). 긍정심리 상담 및 치료의 현재와 미래: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심리치료학회지, 4**(1), 61-77.

박연희(2007). 집단음악활동이 학교생활 부적응 아동의 스트레스 감소 및 자기 표현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공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은아(2005). 청소년의 진로 및 진로교육에 대한 인식. 석사학위논문. 목포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지은(2012). 유아의 정서조절을 위한 음악활동 프로그램 개발 연구. 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법제처(201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제9항. 2013년 5월 6일 검색.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36644&efYd=20130323#0000

송영미(2003). 가사토의를 중심으로 한 Group음악활동이 척추손상 환자의 anxiety와 depression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음악치료대학원.

신정선(2005). 집단음악상담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교우관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양숙미(2000). 발달장애인의 보호제공자를 위한 가족지지모델 고찰. **사회복**

지 리뷰, 5(1), 73-93.

양옥경, 김미옥(1999). 사회복지실천에서의 권한부여(Empowerment) 모델에 관한 고찰. **사회복지, 143**, 155-172.

오정영(2011). 자활사업참여자의 임파워먼트를 위한 긍정심리프로그램 구성 및 효과. 박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우정한, 김지원(2005). 특수학급 교육대상자 선정에 따른 진단·평가 실태와 개선방안: 초등학교 특수학급을 중심으로.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6**(2), 201-228.

유숙경(2005). 인터넷 카페를 활용한 진로탐색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상담심리연구, 7**(1), 69-93.

이경서(2009). 자기표현 음악치료 집단상담이 예비 고등학생의 불안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대학원.

이규정(2002) 정신질환자의 언어적 상호작용과 관계형성에 대한 음악의 효과성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이상애, 조현양(2007). 독서치료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진로성숙도 향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8**(2), 101-124.

이상진(2011).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통한 발달장애 중학생의 진로의사결정능력 연구. **청소년시설환경, 9**(3), 25-39.

이소정(2000). 장조와 단조를 중심으로 한 음악적 정서 반응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이수경(2005). 음악감상 중재와 리듬연주 중재가 직장인의 스트레스와 불안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음악치료대학원.

이숙영(2008). 노래 부르기를 통한 경증치매노인의 자기표현 향상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이승현(2000). 음악치료가 자폐아동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이시현(2013). 순회교사의 입장에서 본 특수학급 미설치교 순회교육 실태.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이윤화(2000). 역량강화적 접근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복지관의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이은실(2013).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이 고등학교 특수학급 학생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이은주, 홍진희(2012). 특수학급에 배치된 장애학생의 통합학급 또래관계와 수업 및 학급 이동에 대한 인식. **통합교육연구, 7**(2), 2-128.

이정실(2009). 음악활동에서의 청소년의 감정상태, 감정조절 전략이 감정능력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이진숙(2005). 중학생의 집단진로탐색 프로그램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대전대학교 교육대학원.

이현림(2006). 다중지능 이론을 적용한 진로탐색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직업가치관과 진로의식성숙에 미치는 효과. **한국아동교육학회, 15**(2), 101-116.

임영숙(2001). 음악치료를 적용한 정신 간호사례 연구. **가천길대학 논문집, 29**, 9-29.

임은정(2005). 음악활동과 집단상담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아동의 자기존중감, 자신감, 및 사회성 증진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대전대학교 교육대학원.

임현정(2009). 노래심리치료가 내재화된 정서 문제를 갖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증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정순둘, 김경미, 박선영, 박형원, 최혜지, 이현아(2007). **사회복지와 임파워먼트**. 서울: 학지사.

정익중, 임진영, 황매향(2011). 초등학생용 진로성숙도 검사도구 개발. **초등교육연구, 24**(3), 169-194.

정인숙, 김언아, 김형일, 박재국, 임소인(2007). **특수교육기관 진로·직업교육 실태 및 요구조사**. 서울: 국립특수교육원.

정현주(2005). **음악치료학의 이해와 적용**.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주장훈(2006). 중학교 학생·교사의 진로인식 및 진로교육 실태 분석. 석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대학원.

최병철(1999). **음악치료학**. 서울: 학지사.

최소림(2006). 노래를 중심으로 한 집단음악치료 활동이 장애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향상과 불안 감소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음악치료대학원.

최신형(2007). 저소득층 부적응 아동의 역량(empowerment)강화를 위한 음악치료 프로그램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최원석(2008). 지적장애청소년 역량강화모델 적용에 따른 실천적 함의. **미래청소년학회지, 5**(4), 197-220.

커리어넷(2012). 진로성숙도검사. 2013년 5월 18일 검색. http://www.career.go.kr/cnet/front/examen/inspctIntroPopupF.do?isFullsize=N&direct=Y&QESTNR_SEQ=7&VALUE_PART=#intro04

한희원(2003). 성악 즉흥기법이 음성증상을 가진 성인 정신 분열증 환자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홍미옥(2009). 역량강화 모델에 기초한 원예치료가 장애아동 어머니의 자아존중감과 부모효능감 향상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농축대학원.

황성철(2002). 임파워먼트(Empowerment)모델과 사회복지조직 관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6**, 65-90.

황정은(2009). 부모와 함께하는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상담연구, 17**(1), 112-132.

Averill, J. R.(1999). Creativity in the domain of emotion. In T. Dalgleish

& M. J. Power(Eds.), *Handbook of cognition and emotion*(pp. 765-782). New York: John Wiley & Sons.

Borczon, R. M.(1997). *Music therapy: group vignettes*. Gilsum, NH: Barcelona Publishers.

Brzuzy, S.(1996). Deconstructing disability: The impact of definition. *Journal of Poverty, 1*(1), 81-91.

Compton, W. C.(2005). *Introduction to positive psychology*. Belmont, CA: Thomson Wadsworth.

Crites, J. O.(1981). *Career counseling: Models, methods, and materials*. New York: McGraw-Hill.

Edgerton, C. D.(1990). Creative group songwriting. *Music Therapy Perspectives, 8*, 15-19.

Freire, P.(2000). *Pedagogy of the oppressed*. New York: Continuum International Publishing Group.

Graham, J. & Barter, K.(1999). Collaboration: A Social Work Practice Method. *Families in Society, 80*(1), 6-13.

Gutierrez, L. M.(1994). Beyond Coping: An Empowerment Perspective on Stressful Life Events. *Journal of Sociology and Social Welfare, 21*(3), 201.

Mathews, R. M. & Seekins, T.(1987). An interactional model of independence. *Rehabilitation Psychology, 32*(3), 165-172.

Mayer, J. D. & Salovey, P.(1997). What is emotional intelligence? In P. Salovey & D. J. Sluyter(Eds.), *Emotional Development and Emotional Intelligence: Educational Implications*(pp. 3-31). New York: Basic Books.

Miley, K. K., O'Melia, M. & DuBois, B.(2013). (7th ed.), *Generalist social*

work practice: an empowering approach.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 Hall.

Oliver, M.(1989). The social model of disability: Current reflections. In P. Carter, T. Jeffs & M. Smith(Eds.), *Social Work and Social Welfare Yearbook 1.* Milton Keynes: Open University Press.

Rappaport, J.(1987). Terms of empowerment/exemplars of prevention: Toward a theory for community psychology.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5*(2), 121-148.

Robert W. F., Robert M. B., Pamela L. & Thomas J. S.(2010). **장애 중등학생을 위한 전환계획**. (신현기, 김희규, 박정식, 유애란, 유장순, 정동영, 채희태, 최혜승 역). 서울: 박학사(원저 2001 출판).

Saleebey, D.(2012). (6th ed.), *The Strengths Perspective in Social Work Practice.* Boston: Pearson.

Seligman, M. E.(2002). *Authentic happiness: Using the new positive psychology to realize your potential for lasting fulfillment.* New York: Free Press.

ABSTRACT

The effects of the music therapy group counseling program based on the empowerment model; For the career maturity of the middle school students who have disabilities in special classes

Park, Jin ah
Department of Music Therapy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 the effects of the music therapy group counseling program based on the empowerment model on the career maturity of the middle school students who have disabilities in special classes. The study aimed at 30 students with disabilities in a special education classroom in A middle school and B middle school, and placed 15 students in the experimental group and another 15 students in the control group. The study offered a total of eight sessions of music therapy twice a week for four weeks. Then music therapy was offered for 45 minutes per session by one music therapist in an extra help class in those middle schools. In order to evaluate career maturity, the study employed a 'career maturity inventory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carried out a pre-test before one session of intervention. After

interventions undertaken throughout one to eight sessions, the study performed a post-test. The data collected in this study were processed with SPSS 18.0.

The results obtained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ccording to the paired sample t-test results about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pre- and post-test career maturity scores, the experimental group's pre- and post-test scores differed in a statistically significant way ($p<.001$). This demonstrates that the group counseling program with music therapy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improvement of career maturity. Second, according to the paired sample t-test results about the experimental group's pre- and post-test scores in the four areas (planning quality, self-understanding, attitude toward work, and independence) of career maturity, the planning quality & independence area showed significant change ($p<.01$), and the self-understanding & attitude toward work area did so, too ($p<.001$). This implies that the group counseling program with music therapy affected positively the enhancement of career maturity according to each of the four areas.

부록

1. 진로성숙도 검사

순	문항	전혀 아니다	아니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잘하는 일이 무엇인지 안다.	1	2	3	4	5
2	돈이 충분히 많다면, 직업을 가질 필요가 없다.	1	2	3	4	5
3	부모님이나 집안 어른들이 내 직업을 정해주기를 원한다.	1	2	3	4	5
4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면 어떤 직업이라도 좋다.	1	2	3	4	5
5	내가 남보다 잘하는 일이 무엇인지 자주 생각한다.	1	2	3	4	5
6	나의 장점이 무엇인지 안다.	1	2	3	4	5
7	나에게 맞는 직업이 무엇인지 부모님이나 선생님 등 어른들이 나보다 더 잘 아신다.	1	2	3	4	5
8	내 장래 희망을 이루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해 본다.	1	2	3	4	5
9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지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정해주셨으면 좋겠다.	1	2	3	4	5
10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다.	1	2	3	4	5
11	미래를 위해서 다양한 경험을 쌓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1	2	3	4	5
12	내 장래 희망과 다르더라도, 부모님이 기대하시는 것을 따라야 한다.	1	2	3	4	5

순	문항	전혀 아니다	아니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3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하여 곰곰이 생각해 본다.	1	2	3	4	5
14	학교 공부 중 어떤 것들은 나의 장래 희망을 이루는데 중요하다.	1	2	3	4	5
15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들인지 안다.	1	2	3	4	5
16	내가 어떤 일을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1	2	3	4	5
17	미래에 어떤 직업을 갖게 될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1	2	3	4	5
18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자주 생각해 본다.	1	2	3	4	5
19	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1	2	3	4	5
20	나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자주 생각한다.	1	2	3	4	5
21	지금 여러 직업들에 대해 미리 알아보는 것은 의미가 없다.	1	2	3	4	5
22	나는 미래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해 보지 않았고, 관심도 없다.	1	2	3	4	5